

축제! 열정으로 도배해 주마

함께뛰면 단결력도 뿜다! - 박승열 수습기자

지난 23일 4시, 노후교육에서는 대면 학습이 대외가 열렸다. 단체 학습이 대외는 2층으로 향해서 열은 문을 열고, 1층은 안에서 문을 닫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2층의 기계를 주어진 대로, 어떤 과는 마티스와 연수를 하고 하와이 제작과도 대외를 보여주고 했다. 매일 2층을 돌면서 영어교육과 처음 열리는 기계를 1층 안에서서 문을 열어 준다. 하와이 교육과 행정학과, 그리고 화학교육이 도전했고 나, 영어교육과와 기계를 먼저 닫았다. 마티와 기계를서도 영어교육과를 연문을 넣었다. 뒤를 이은 중국어는 초반 열려 결하는 실수를 해 영어 교육과와 기계를 남지 못했다. 결국 최종승은 영어교육과가 차지했다. 뽀얀색(사범, 영어교육 22년) "학기만 과가 적었고 우리과가 단련력이 높아 수업을 수 있었지 갖 갔다"고 말했다. 우승은 영어교육과와 그 7개 과 재직을 하여 103명보다 100명 가까이 수했다.

갬블러, 포커대회에서 맘껏 게임을 즐겨... - 고창영 수습기자

지난 22. 29일(금) 양양군 대학원 1층 소강당을 대일당원과 최후로 제1회 '외대인 포터제'가 개최됐다. 대회를 주최한 최성훈(97년)은 "드라마 '왕의 남자'가 도약이 아닌 게임으로 시작됐다고 이런 분위기에 맞춘 포터제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게임은 세븐(포터)으로 진행됐으며 우승 상금은 10만원이었다. 4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22식(포터) 애드존을 포함 10종의 본선 진출자에는 28명(포터) 준승전권을 치루는 토너먼트 방식이었다. 준결승을 치루는 경기에 출전한 5명의 참가자들에 열광하는 우승자 대한 기쁨이 가득했다. 게임결과 우승을 차지한 강연수(서대·대일당원)는 97군은 "친구가 주축을 한다가에 재미삼아 참가했는데 우승하게 하게 되어 기쁘고 상금으로 친구들을 한턱 낼 생각이다". 또 우승상금을 받았다.

대동제의 작은 세계 '월드 빌리지' - 김현지 수습기자

지난 23일(월), 항상 조용하기만 한 도서관 앞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우리 학과에서 한 볼이 있는 아픈, 비틀 월드 빌딩이 있다. 빌딩이 빌딩으로
조각난 것 같다. 빌딩이 마치 파괴 세력이 거 존재했다. 빌딩 색의 러시아 전통의상을 입고 캐를 민속춤을 보여주고 아녀는 되어 노래하고 패전
전경은(한일) 조이 (한일)은 패전 일기에서 빌딩이 열었다 열었다 한탄을 할 것 같고 내리 그 것 같고(아) 내려갔다. 다른 한에서 '죽여만
발' 이라고 는 종이를 등에 붙이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 그 학생은 한 손에 피라게타를 그 등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바
쁘게 지나갔다. 잠시, 한참의 뜨거운 태권도 마인드파에서 관하는 열대야의 푸른 는 날개 돌린 것 같았다. 그 색 각 나라의 고유하고 독특한
한기가 물결 칠기, 이하는 그야말로 하나의 '색' 적 세계.

통일의 염원을 담은 한 목소리 한 몸짓 '통일 문에 한마당' - 김현지 수습기자

[illegible]

외대 최고의 가수와 춤꾼을 한 자리에~~ - 이해상 수습기자

“나를 순서는 참가자 중 유일하게 본스를 선보이는 강렬합니다.” 지난 2월 13(화) 노년극에서 열린 기부 경연대회에서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예선 참가 의뢰 한 남자가 무대에 등장했다. 그는 가리보르 지를 향해 ‘남자야여자야’라는 순간극을 순회했다. 제가 자를 열었다면 모든 분은 하 점짜리다.”라고 자신있게 강연(강연)은 (O) 존은 바를 ‘남자’에 맞춰 헌정된 몸 줄을 선보이며 지를 얻어갔다. “가리보르를 신성 계사문에 열여학부 학자가 아무도 없었어 제가 열여학을 빛냈고 참가했잖아”라고 참가자를 밝힌 그는 본소 다른 사람에게 조금 주기를 줄여나온 이만 주를 부담없이 얻었으며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춤을 순회했다 했다. “이 학교 축제에 비해 행사가 조금 미흡한 것 이 이만극단과 함께 행사가 장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새 세대가 주를 지 축복의 순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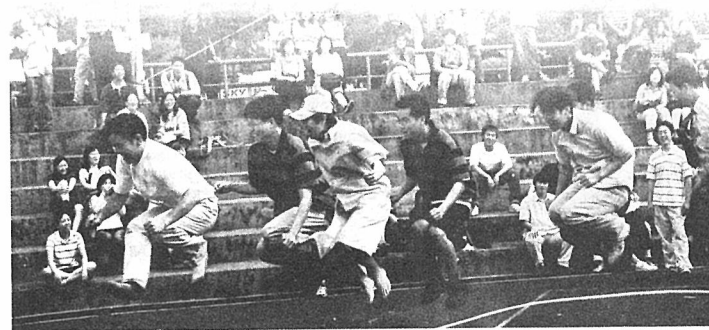
진짜 알까는 대회 - 조혜원 수습기자

"지나다? 우연히 참가하게 됐는데 공짜 티켓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흔쾌성회주최로 열린 알가기 대회는 참가자 박민진(시화초)·정형재(03)의 우송소이다. 이어 박은 사가선 23살(03) 3학년 초등생에 대한 소개를 했다. 알가기대회는 장갑을 끼고 매쉬유 10개를 가장 먼저 하는 시합 우승하는 게임이며 손톱깎기와 티셔츠와 신발을 찾아야 시합이 진행된다. 15분간의 게임을 치른 뒤 알가기대회에는 조준진(사초)이 아이어 (02) 아이 우송을 차지했다. 알가기 대회가 열리는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뛰어왔다는 그녀는 "알가기는 인이어프?"라며 우송소장을 받았다. 위를 차면서 컴컴구(03) 정은 "그동안 이사와서 나왔는데 왔었는데 알가기대회를 알고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며 여지근구에 대한 애정을 그 소감을 밝혔다. 이어 3세대대회는 박민진(시화초)·정형재(03)의 우송을 차지했고 박은 사가선 23살(03)이 그 득표였다.

누가누가 잘 맞추나! - 강경신 수습기자

5월 21일 오후 2시, 우리학교 노천극장에서는 외대 최고의 지성들이 한데 모여, '도전, 끝내뺨을 물려라'가 개최됐다.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
는 진행되었다. 최근 있었던 사회적 이슈부터 경제, 역사,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었다. 1등에게는 상품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주어졌다.
번까지 반 이상이 탈락하면서 〈공직부활전〉을 하게 되었다. 총 5조로 나뉘어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10명이 부활에 성공하였다.

과거부활전에서 자신의 조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이강욱(중국이고,03)군은 17번에서 탈락하면서 “플루토 행계를 느꼈지만 앞에서 자기 소개한 것에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전했다. 박정호(노어,03)군은 “다른 학교 축제에 가면 연예인 행사가 주를 이루 학생들이 소외당하지만 우리 학교는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2003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입학전형 모집	
1. 모집단위	학·역사 학과외장학과 학과 안의 영
2. 모집분야	본교 홈페이지(http://www.hubu.ac.kr) 공지사항 참조
3. 전형방법	서류시험 및 구술시험(또는 면접)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참조
5. 전형방법	가. 원서(교부) : 2003. 6. 2일 ~ 6. 5일 학과 본교 홈페이지(http://www.hubu.ac.kr) 나. 원서접수 : 2003. 6. 2일 ~ 6. 5일 17:00 본 대학교 교칙 다. 전형일 : 2003. 6. 2일 ~ 10.00 라. 합격발표 : 2003. 7. 1일 14:00
6. 기타사항	가. 입학지원서류 우편접수는 2003년 6월 5일(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학과지 명칭을 기입할 통지사항 없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기간 내에 홈페이지에서 교지사항 출력 후 통지사항이 비활성화 * 원서접수 : 대학교 교칙 (제961-490, 962-717)
제2기 TESOL 연구과정 학생 모집	
1. 원서 교부 및 접수	2003. 6. 24(목) ~ 6. 30(월)
2. 전형일	2003. 7. 5(토) 14:00
3. 개강	2003. 8. 9(월)
4. 세무사항	2003. 6. 11(목)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
5. 문의사항	대학교 교칙, 전학 (제961-490, 962-717)

2003학년도 후기
국립외국어대학교원 신임생 모집

모집학과 및 인원

가. 학사학사과정 : 0명

한국어학, 중국어학, 일본어학, 통상 언어사학과, 중동 아프리카학과
나. 통상언어학과, 유럽언어학과, 북미학과, 중남미학과(9개학과)

다. 학사학사과정 : 0명

한국어학, 국제지역학, 국제언어학과

가) 각 과목별 원 학과 내 외국인 지원 가능

진학방법

서류합격 후 면접(구술)

※ FLEX, TOEFL, TOEIC 등 공인된 외국어 인증시험 성적 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나. 대학원(원)입시(원)공정서, 입학절차서	각 1부
다. 사진 3장(3×4cm)	
라.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부
마. 사서제출용 외국어(영어 또는 지원학) 성적표	1부
바. 사서제출용 외국어 인증시험(토플/토픽, 토익 등) 성적소지자는 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학번만 기재 함)	

전형방법

가. 원시교부 및 접수 : 2003. 5. 26(월) ~ 5. 30(금)

나. 면접일 : 2003. 6. 14(토), 10.00 ~

다. 합격자 발표 : 2003. 6. 24(화) 14:00

특정

장학금 지급, 해외원정비, 프로그램비도 제공

유의사항

가. 원시교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원서소지인 교부(구교간임교부함)

나. 원시교부 홈페이지에 발표예정인 지원 절차, 출제학과에 구비서류와 전형결과를 지참, 본 대학원 교부서 제출(후원금 등 가능)

다. 원시교부에 지원절차가 없으므로 우편으로 부여되지 않음

+ 입학정보 : 국제지역학부 교육부와 02(961)-4198, 9, FAX: 02(965)-4792
홈페이지 : <http://grius.hufs.ac.kr>

+ 교직원 : 전경 13층 1304호 최재원 차장

한 국 의 국 어 대 학 교

2003학년도 후기 특별전형 세경영대대학원(이)간 신입생 모집

I.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0명, ● 연구과정 : 0명

II. 모집학과 및 전형방법

계열	전공	전공(전문가 포함)	전형방법
경영관리系	국제통상	무역영어	서류검정 및 면담
	국제경영	산업조직론 / 마케팅 / 국제재정(중)	
	국제물류관리	국제물류관리론	
	정보통신	컴퓨터응용(MIS)	
경제금융系	국제금융	보험 / 증권론 / 재무 / 기업	
	국제회계	회계학 / 세법	
	국제통화	각 전공	

3. 학위과정 특징

가. 2년내 학위 취득 가능 / 나. 학위를 통한 졸업 인정

4. 지원자격

① 대학 재학(교) 교육연구직학사학부 인문과학(가)종류가 되는 2003년 8월 졸업예정자
● 학부전공과 제인 없음.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장서), 반영범위 사전 서한 부착)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성적증명서 1부
와 주선서(무. 두 점씩 복제하여 제출) 1부
● 입학원서외의 지원관련 서류들은 접수처에 직접 편착을 함

6. 선발방법

가. 원시모집 : 2003. 6. 11(수) ~ 6. 17(토), 본·화학도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여 출타
나. 화합도 : 2003. 6. 11(수) ~ 6. 17(토)(18:24 - 오후 3시)
● 화합도 입찰 후유
다. 진 학 후 : 2003. 6. 21(식) 14:00 세경영대대학원

7. 학업준비제도

가. 장학금 및 기금교과 교수지원(2002년 10월에 착수한 학과) 지급
나. 해외 출성 우수석사(박사)학위취득자에게 장학금 지급
다. 국제재무금융학과 입학실적 우수자에게 특별장학금 지급
● 입학신청 : 세경영대대학원 연구지원 부서 (02961-4109, 430)
▶ 본대학 홈페이지 : www.hsbc.ac.kr ▶ 세경영대대학원 홈페이지 : www.sekyung.org
● 교편청 : 자료관 1호선 외대입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년도 후기 정책과학대학원(이안)					
일본정책 및 MPA(정책학석사) 온라인프로그램 특별전형					
※ 정회원대학원은 전자등록방식, 정회원대학원의 추가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1. 지원 자격 요건 및 전형방법					
요건 사항	학	과	전	모집단위	전형방법
	공통정책	공통정책	공통정책		
	MPA(정책학석사) 온라인프로그램	MPA(정책학석사) 온라인프로그램	MPA(정책학석사) 온라인프로그램		
학 사 과	정책학	정책학	정책학		
(필수과목)	외국인법	외국인법	외국인법		
	국	국	국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영어	영어	영어		
	경제	경제	경제		
	정치	정치	정치		
	문화	문화	문화		
	사회	사회	사회		
	법	법	법		
	행정	행정	행정		
	국제	국제	국제		
	통상	통상	통상		
	환경	환경	환경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정보	정보	정보		
	문화	문화	문화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관광	관광	관광		
	도시	도시	도시		
	농업	농업	농업		
	수산	수산	수산		
	해양	해양	해양		
	환경	환경	환경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정보	정보	정보		
	문화	문화	문화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관광	관광	관광		
	도시	도시	도시		
	농업	농업	농업		
	수산	수산	수산		
	해양	해양	해양		
	환경	환경	환경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정보	정보	정보		
	문화	문화	문화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관광	관광	관광		
	도시	도시	도시		
	농업	농업	농업		
	수산	수산	수산		
	해양	해양	해양		
	환경	환경	환경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정보	정보	정보		
	문화	문화	문화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관광	관광	관광		
	도시	도시	도시		
	농업	농업	농업		
	수산	수산	수산		
	해양	해양	해양		
	환경	환경	환경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정보	정보	정보		
	문화	문화	문화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관광	관광	관광		
	도시	도시	도시		
	농업	농업	농업		
	수산	수산	수산		
	해양	해양	해양		
	환경	환경	환경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정보	정보	정보		
	문화	문화	문화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관광	관광	관광		
	도시	도시	도시		
	농업	농업	농업		
	수산	수산	수산		
	해양	해양	해양		
	환경	환경	환경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정보	정보	정보		
	문화	문화	문화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관광	관광	관광		
	도시	도시	도시		
	농업	농업	농업		
	수산	수산	수산		
	해양	해양	해양		
	환경	환경	환경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정보	정보	정보		
	문화	문화	문화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관광	관광	관광		
	도시	도시	도시		
	농업	농업	농업		
	수산	수산	수산		
	해양	해양	해양		
	환경	환경	환경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정보	정보	정보		
	문화	문화	문화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관광	관광	관광		

기자의 '대동제' 체험기

말없이 고이는 못보내드려!

'이번 대동제, 과연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작년을 떠올려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저기 시끄럽지만 왠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 같은 것 없는 걸로 보아 즐겁게 참여하지 못했었던 것 같다.

수업이 끝나고 승차장으로 가는 길에 기적에 아 했던 것은 일순으로 슬쩍슬쩍 보이는 우리 학교 꽃바람의 모습 찾기에 불과 했다. 이런 작은 필자의 모습이 한심도 하고 해서 이번 2003년 대동제는 모든 행사마다 다 참여해 보려는 다짐을 굳게 했다.

5월! 뜨거운 더위도 너무 뜨거웠다. 대동제가 열렸던 3일간, 햇빛은 우뚝 솟아 있는 우리 학교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햇빛은 우리 학교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햇빛은 우리 학교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21일(수) 축제 시작날 비록 이날 낮 12시가 넘어 도착한 나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색색의 천막들이었다. 무슨 유원지에 놀러 온 것 같은 광경을 연상시키는 이 천막들 속에서는 각과마다 세련된 듯 준비한 각과와 독특한 전통의상들을 새내기들에게 입히기에 분주했다. 축제는 나이를 망리한 누구에게나 들리고 흥분되게 하는 자리인 것 같다.

먼저 학생회관 앞에 아랑귀가 주회하는 물풍선 타프리가 행사에 갔다. 참가비를 받는 아랑귀의 한 학생은 물 풍선 4개를 필자에게 건네주며 '참에 드는 남학생 한 명 고르시면 돼요'라고 한다. 이상이란 좀 세련되게 꾸미고 온 애를 맡아주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란 누구가 기질 수 있는 멋진 심보를 갖으며 선글라스에 걸맞은 차림을 하고 머리에 잔뜩 신경을 쓴 한 남학생을 선택했다. 하지만 막상 풍선처럼 물풍선 하나만 주면 얼굴을 내미는 그를 보니 마음이 왜이리 아팠는지... 물풍선 4개는 선택된 그 학생의 얼굴 어디에도 맞지 않았다.

동아리 연합회에서 주최한 달밤 갑 위에 동전 율리키 게임은 언뜻 보기에도 상공이 놀라울 것 같아 보였으나 달밤 밑의 줄기에 쓰여진 선물목록이 언뜻언뜻 보아도 발절을

멈추고야 말았다. 1회에 100원인 이 게임에 무려 10만이나 도전을 했지만 동전은 달밤 갑 위가 아닌 자꾸 진행자의 주머니 속으로만 들어갔다.

거리에서 전시된 폭풍전주 동요합대의 사진전엔 작품성보다는 열기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둔 것 같다. 여장을 한 남학생들의 모습과 구약할 하는 시늉을 하는 모습의 사진들은 아무래도 아름다움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독특한 것들에 더 눈을 땔 수가 없었다.

플랜드어에서 준비한 인간 두더지 게임은 뽕망치의 크기마다 가격이 다른 필자는 이왕이면 화끈하게 하자라는 생각에 제일 비싸고 두들한 1000원짜리 뽕망치를 택했다. 돈을 벌게 됐어도 구멍 안에 인간 두더지로 변신해 들어가는 플랜드어와 남학생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은 않았다.

무심한 같은 과 여학생들은 '스트레스 다 풀고 가세요, 세계 치세요'라며 재빨리 뽕망치를 건네왔다. 필자의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지만은 5개의 구멍을 들어가지 않았다 일어났다는 반박에 고개를 내밀어놓는 3명의 남학생들은 아마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된 것 같았다. 맞은 머리보다도 다리가 더 아프다면서요 때로는 사람을 생각해 미소를 잃지 않는 그들이 안타까워 시간은 더 차지 않았지만 뽕망치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매정한 한 여학생의 한마디 "본 남았는데요?"

갑 많은 필자는 축제기간 동안 명수당에 설치된 만지점프대를 뛰고 싶었으나 팔이질 때 몸보다 심장이 먼저 떨어질 것 같아 포기하고 형기리어에서 주최하는 죽음의 자이로 담요를 경험해 보려 갔다. 필자의 몸무게를 어림잡자 60kg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 학생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수의 남학생들이 필자를 던질 담요에 모여들었다. 약간 젖어 있던 담요의 중앙에 앉혀진 후 그들의 가슴 높이로 들리는 순간 '부지' 소리와 함께 담요는 점점 더 작아졌다. 다급한 목소리로 필자는 '잠깐만요, 이 것 벗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공중위로 내동댕이쳐졌다.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다시 그 불안한 담요위로 내려왔고 담요가 더 작아짐과 동시에 다시 공중위로 올라갔다. 그러기를 세네번... 던지기 끝

난 후 잔디밭에 쓰러져있는 필자의 모습은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꽤 초라해 보였다고 한다. 오후 5시 반에 20주년을 맞는 이웃사이의 기념공연을 본 후 다음날을 기약했다.

22일(목), 노천극장에서 카라멜과 그룹 '보이치'와 '나타'의 공연이 있었다. 콘서트장을 벗어나면 아주 조그만 눈이 들끓는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재미 있는 사회자와 함께 웃고 떠들며 공연을 관람했다. 우스개 소리 자매결연이라 불렀던 모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그 외의 모친 주민들이 공연에 함께 해 노천극장을 가득한 배울 수 있었지만 가끔 산하에 끼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공연 주위가 한바탕 지저분해졌다.

23일(금), 마지막 자치는 많이 부족하지만 1등에게 주는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커 보였는지 후배와 함께 키즈대에 참가하게 되었다. 문래도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고 카운트 뒤까지 때문인지 맨한 체력은 지칠 수 있었다. 도전 골든벨 형식이지만 문제를 풀다 틀려도 떨어지지 않고 맞추는 사람에게만 스타카를 붙여 스타카 개수가 많은 사람이 최종 승리를 하게되는 방식이었는데 '오세암'이라는 답을 쓰는 질문은 '곤지암'이라는 재치있는 답을 쓴 한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내 재치점수 스타카를 받기도 했다.

폐막식과 함께 축제는 끝났다. 직접 참여해 보고 경험해 본 이번 대동제는 작년과도 아무래도 느낌이 많이 달랐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그들이 표현하는 것뿐이다"라고... 직접 경험해 느껴보지 않고서는 누군가 표현하는 내용을 본 나 머지는 알지 못하는 셈이다. 이번 대동제에서 아쉬웠던 면이 있다면 다음 축제 때에는 직접 경험해 봐서 많은 생각들을 모두 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각해미 기자
ganzhiyemi@hanmail.net



Unique & Best

글로벌 인재양성의 백년대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제시하겠습니다

1954년 국내 유일의 외국어 고등교육기관으로 출범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글로벌인재의 동문문으로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제 변화의 도전을 통해 한국외대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합니다. 세계와 공존하는 Multiplexer 인재양성으로, 글로벌인재의 큰 비전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외대 입시, 이렇게 달라졌다 [200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입학전형]

모집시기 전형방법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서울 나군	서울 대·외군
원서접수	6. 3(월) ~ 6. 9(월)	9. 1(월) ~ 9. 6(토)	12. 10(수) ~ 12. 15(월)	
전형일	• 영문고려면담(1학기) 1학기(논술) : 7. 15(화) 2학기(면담) : 7. 25(금) • 국제전문가 : 토익·토플 우수자 전형 : 7. 25(금)	• 영문고려면담(2학기) 1학기(학부) 40%(선발) 2학기(논술) : 9. 25(토) • 토익·토플, GRE, TOEFL, FLEX, 자사고우수자, 실업계(출산)전형 : 10. 11(토) • GRE다점전형, 신지식인전형 : 10. 18(토)	• 논술시험 : 1. 8(화) 예정 - 수능 67% - 학생부 30% - 논술 3%	- 수능 70% - 학생부 30% 4차평에 반영

□ 수시 : 2학기 모집 (0.107명)

- 자립지원 : 자율·주변이 및 자립지원
- 원서접수 : 영문으로 작성
- 수능 최저 학력기준 : 연세대에 영문(2개 영역으로)
- 졸업생도 지원가능(자사고 우수자전형 제외)
- TOEFL : TOEIC 성적 우수자 재학생 장학금 지급(자립지원 20%)

□ 정시모집 (2.388명)

- 수능시험 : 연세대에 영문·독문·영어·수능 4영역으로 축소
- 학생부 : 졸업 반영비율 4.2%, 연세고교육은 영어로 반영

입학상담 : 02)961-4471~3 www.hufs.ac.kr

- 신입생 전원 수용가능한 외국어학점 전용 기숙사 신축
- 국내 최초의 영어대학 신설
- 중앙아시아학과, 발칸/슬라브학과, 동아시아학과 신설
- 중국어와 일본어학을 통합한 동아시아학부 신설
- 어문계, 비어문계 동시전공 가능한 +2 교육
- 무속 외국어고등학교 신설

인재를 키운 50년! 세계를 키운 10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새로운 학생운동 방향모색을 위한 좌담회

새로운 학생운동, 대중의 눈높이를 맞춰야

그 동안 학생운동은 대학 내 학원자주화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순을 바꿔 나가기 위해 신도적인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현 시기의 학생운동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대중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 채 조직 내 폐쇄성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서울지역대학 신문사는 지난 22일(목)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세미나리관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지향을 가진 각 대학 대표자를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 속에서 학생운동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학생운동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참석자

사회자 : 조득근·서울시립대 신문사 편집국장

패널: 김백선·서울대민노당 위원장(김), 신진수·한양대 총학생회장·전국대학비운동권(신), 박재익·고려대 총학생회장·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서울지역총학생회 의장(박), 최지선·이화여대 총학생회장·전국학생회협의회 대표(최), 박경열·서울대 총학생회장(김), 주창미·성신여대 총학생회장(주)

사회: 학생운동을 대중 운동의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신진수(신): 학생운동도 이제 변화할 때가 되었다. 모순이 없는 사회는 없다. 이제 하나의 큰 화두 민으로 학생들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끌고 간다는 건 회의적이다. 이제 물을 바꾸고 싶었다

김백선(김): 90년대 후반부터 대중운동이 약화된 건 사실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운동의 약화 속에서 학회 소모일 등이 급속히 붕괴되면서 학생운동이 더욱 침몰해 갔다.



주창미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박재익(박): 학회제가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한 데에는 사회 정치적 변화와 함께 학생대중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부정부패에 대한 혐오의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문화적으로 대중의 생활문화 취향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전면적인 혁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지선(최): 과거 80년대 대중들의 열망에 의해 자치권력으로 만들어졌던 학회가 권력으로부터 남았다. 현재 역시 대중들의 열망이 식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 학생운동은 지금의 대학 현실에서 맞지 않은 옷이라 생각한다. 다양화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경열(박):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학생들의

관심사와 요구들이 다양하고 대학사의 자체가 다원화된 만큼 다원적 차원에서 민주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총학생회의 회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총학생회 회칙을 살펴보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통괄하는 소비에트식의 과거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민주적인 대의제대로 개혁을 위해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다.

주창미(주): 과거 학생운동은 군부독재에 맞서는 하나의 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의 과제 역시 보편적인 투쟁을 위한 과제를 찾아 함께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97년 98년 광역화, IMF, 학부제 도입 이후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학생운동은 빠르게 변화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사회자: 학생운동 조직이 단일·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없나



박재익 (서울대 총학생회장)

박: 실제로 학생운동이 몇 년간 분열되어 함께 하지 못하고 조직에 따라 벽을 쌓은 것이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 학교마다 나오는 선거운동본부(선본)도 정쟁에 있었고 조직별로 자신들의 정치 사상적 기준을 통해 선별의 정치적 입장이 총학생회의 정치적 입장으로 대변됐다. 한동안 역시 97년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중조직으로 출범했지만 학생운동 내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 힘을 잃어 왔다. 서로의 차이는 인정해 주되 공통점을 찾아 함께 공동투쟁을 활성화하는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를 쌓아가자.



신: 솔직히 나는 한홍준도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한쪽이 너무 크고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더더욱 대립이 생겨난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공감대를 찾아 함께 하는 것이다. 서로의 관심사가 다를 땐 존중하고 공통의 관심사일 때는 함께 하는 다당성이 필요하다.

김: 차이와 다양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분열과 차이의 근본적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논의되어야 한다. 명확한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배타성과 통합성은 운동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이다. 근본적인 처방 없다면 다수의 패권주의가 아닌가. 많은 대중과 학생회



최지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가 참여하지 않을 때 많은 비판과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렐: 학생운동 정파간의 분리가 필자만 많지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더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비전도 정치적 지향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단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사회자: 정당이라든지 인권 여성 등 다양한 이슈 중심의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당이라고 하면 일성적으로 말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정치조직의 최상위단체를 말한다. 진보정당의 출현이라는 것은 정파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만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도 정치권력을 잡는 것이 필수다. 정치조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당이라는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 정치권력의 장악이고 대중의 지도구심의 중심이라면 당파라고 마찬가지이다. 나름대로 사상과 정치노선을 갖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한다.

사회자: 비운동권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 비운동권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모여 정세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정세성을 무엇으로 표현할지는 찾지 못했다. 비운동권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동의 개념을 인정하고 비운동은 맡아 안된다는 부류, 또 다른 부류는 예외운동의 사례를 들어 학생운동은 소멸할 것이므로 비운동이라는 부류이다. 비운동의 발전에 강하게 인정한다. 또한 중앙에서 하는 정치에 관심이 적고 학내정치, 지방자치 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비운동에 대해서



박재익 (고려대 총학생회장)

안 좋은 말도 많다. 대신 관련해서 비운동이 우편양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이승만 정권시절 우익학생운동이 호응을 얻다가 이용과 되면서 소멸했는데 그런 안 좋은 역사적 과정이 있기도 하다. 용어자체부터 변해야 하지 않을까 연대는 더 많은 논의 하에 또 다른 학생운동의 흐름으로써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자: 학생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가

주: 상설적 공동 투쟁체(공동체)를 제안 드리는 것은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

라. 단명한 과제가 있고 과제의 정치적 가치를 중심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과도기적 단계. 어떤 조직을 해체, 건설,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연대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렐: 학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은 생협으로 다 교제 했고 미국은 70년대 반전 이후에 꾸준히 약화되어 왔다. 반면 유럽은 정치적 상황을 가진 학회가 다시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체 역시 광범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동체가 뚜렷한 정치적 지향성



신진수 (한양대 총학생회장)

을 갖고 있다면 300만 하우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의제가 될 수 는 없을 것이다. 좀더 낮은 형태의에서의 수위부터 차차 발전 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 한국사회의 학생운동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나라는 분단체제, 독재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반정부국가에서의 대학에서의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공동체는 공동투쟁체는 총학생회의 대체, 협의체도 아니라 정치적 가치에 동의한다면 총학생회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최: 대중운동의 힘이 약화된 것은 조직들의 분열 때문이 아니다. 한홍준 내에서도 다수와에서 보면 분열이라고 하겠지만 소수에서 보

면 분화,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다. 이제까지 학생운동은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객체화 시켜 왔다. 자기 정치를 갖고 대중들을 만나는데 있어 수평적이고 자율이 존재하는 사회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다.

신: 앞으로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학생자치 활동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물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 정보와 추세를 맞출 수 있는 변화도 필요하다. 학생운동과 학생회를 분리시켜 새로운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다양한 연대 체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박: 학생 운동은 대중들의 힘에 의해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학생운동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더 이상 일방적인 선동과 동원방식이 아니라



김백선 (서울대 민노당 위원장)

다수가 인정하는 대중 운동을 펼쳐야 한다. 학생회는 당연히 정치적 사안을 이야기해야 하고 사회, 문화 등을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한다. 학문적인 분야 역시도 학생회라는 공간이 담아야 하는데 그 동안 이런 점이 많이 부족해 왔다. 또한 학생회 앞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메니저로써 커뮤해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 같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최민지 기자
iterr1004@hanmail.net



“철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어린 동물은 작은 상처 하나에도 함께 아파하는 아이처럼 그 아픔을 나누는 철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감싸안은 철이 있습니다. 작은 철 끝으로 전하는 큰 사랑- 세상 모든 생명이 행복한 날을 소망합니다.

posco
4-11세미 세대를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5·18 한총련 시위에 대한 진상

도대체 누가 5·18 정신을 훼손했습니까? “시대는 젊는데 국회는?”



같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는 평가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빈미



신묘역으로 참배하러 가는 한총련 학생들을 막아선 진경

“사건 쪽으로 미국 가지 않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일)부터 17일(토) 일주일 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 방문에선 지난 후보지 시절 ‘빈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붙었다. 빈미란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의 공영방송 PBS와 인터넷에서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감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정책과 가능성을 열어놓으려 미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 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기네스 기록에서 “북한이 비핵화 선언 무효화를 선언한 만큼 우리도 우연한 카드를 가져야 하며 앞으로 북한이 지난 대선 때 해서는 안된다”라며 다시 한번 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입장은 국내에서는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노 대통령은 “관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개의를 잃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미 간 우호관계를 강조하지 않고 나쁜 관행만 지적했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학교 이경희 교수(법학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원칙이 바뀐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빈미의상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 미국에게 우리의 카드를 너무 쉽게 내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북핵 문제 해결원칙으로 한·미 양국이 모두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지만, 평화적 해결의 해석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화라는 원칙만을 평화적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평화적 해결방법은 경제, 대외적 압력도 포함된 것이다”라며 미국의 국민과 우리나라의 국민은 “언어적 다른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덧붙여 “언의 속 발언과 관련 북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맞장구를 친 것은 카타란 실수”이며 “만약 예리도 미국이 북에 선포공격을 했을 때 우리

가 그 전경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한편, 지난 18일(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한총련이 진행한 시위와 관련 정부가 한총련 시위를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는 발표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경찰과 마찰을 빚은 이번 시위에 참여한 한총련 학생들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죄상” 형의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우대식 한총련 대변인(경희대총학생회장)은 “사실관계에 대해 시야가 좁고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성급한 조치에는 언론의 역할도 크게 기여했다. 동아일보보에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이런 한총련에게 합법화한다’라는 사실을 실으면서 사건의 진상을 더욱 흐리게 만드는 기만, 중앙일보 역시 “이런 행동을 하니 전술적 위장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는 글로 이번 시위를 단정지었다. 그러나 윤영일 광주 전남지역총학생회장(한총련)의장은 “이번 시위는 외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폭력시위 혹은 노 대통령의 참배를 막고자 한 시위가 아니었다”며 “한총련은 이번 노 대통령의 방미를 사대외교로 평가했으며 그것은 5·18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망월동 묘역이라는 장소를 방문하는 만큼 대통령께 청와서안을 전달하려고 했다. 특히 경찰과 마찰을 참배를 위해 구묘역에서 신묘역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한 경찰의 반응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사태였다”며 외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동아일보보 사실을 통해 “민주화 정치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그 원인을 “한총련의 안하무인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태도를 전면 무시했다. 하지만 우대식 한총련 대변인은 “5·18 정신을 훼손한 장본인이 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 학생의 배후에 있었던 미국에게 사대외교를 하는 참예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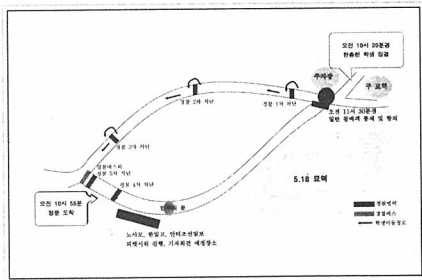
인가” 그들을 규탄하는 학생들인가”라며 동양일보보의 상식없는 사실을 일축했다.

또한, 한겨레신문의 ‘남총련은 한총련 합법화보다 시가별 투쟁을 중시해 놓자고 주장하면서 노 대통령의 5월 묘지 방문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한총련 집행부의 의견이 불일치했다’는 20일지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 대통령에 참배를 하기 전 권유적 외교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뜻이 같았으며, 투쟁방에서도 경찰과 마찰이 있었지만 충돌은 반드시 피하며 기자회견, 피켓시위, 한의사인 전달 등을 함께 계획했다”고 전했다. 우대식 한총련 대변인 역시 “그렇지 않다. 잘못 보도되었다”라며 한총련 내부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 일축했다. 특히, 한총련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의 이번 강경 대응은 마치 가리우고 있었다는 듯했다. 이에, 윤영일 남총련의장은 보도지침을 통해 “인터넷 산일보통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한총련 학생을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나쁜 시민단체들과 차별해 대응한 경찰의 모습에서 한시도 한총련 탄압의 기회만을

노려온 의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한총련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방위에 대해 대항하고 우리 사회는 입을 다물지마는 알고 있다. 감히 감히 개혁국민정당 대표인 오아뉴스의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름다웠다”며 “우리의 현실과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고뇌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법으로 억압하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겨레신문의 조순환 논설위원 역시 “한총련의 시위에서 오히려 이 땅의 희망을 읽었다”는 의사를 노 대통령께 보내는 긴급편지를 통해 전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태 후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를 ‘난동’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사전달 방식을 운운하기 전에 그들이 ‘난동’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그 ‘본심’이 무엇인지 앞서 생각해놓지 않을까?

김종훈 기자
yonghun2000@hanmail.net



한총련 학생들의 행보를 보여주는 행정상황도



www.ihufsan.com
아이후산
에 들어가 보자우요~!
고조, 우리도 날래
ihufsan
나기 만드는 인터넷학대포

만나보기 · 유시민 국회의원

“시대는 젊는데 국회는?”

지난 20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대학신문기자들과 유시민 의원의 긴급회의가 열렸다. 개혁국민정당 소속 4.24 재보궐 선거 당선자 유시민(고양시 덕양구갑). 자기 스스로를 ‘지식인 소매상’이라 말하는 그를 만나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그의 사상과 생각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작시간보다 다소 늦은 오전 10시 35분에 유시민 의원은 예매할드림 녹색 베타에 눈에 띄는 알뜰한 정장차림으로 건담의 자리에 도착했다. 어색함을 없애려는 듯 “아수나 만지 하고 합시다”라며 일일이 기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악수를 청한 그는 뛰어난 연설력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먼저 이번 5.18 노무현 대통령 공주 방문 관련, 한국대학총학생회장(한총련)부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것은 한총련의 자유의사표현이며 그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 100% 존중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생운동은 열정과 마축함이 혼합되는 운동으로 그 행위를 의의와 폭력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회에서 좀더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지칭 ‘보수주의’ 세력들의 활동이 거센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유 의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는 무엇일까? 그는 “진보와 보수는 그 사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전한 보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극우세력인 집단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며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배제시킨다. 이런 극우가 판치는 사회에서는 진보란 있을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덧붙여 그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자유, 복지, 정의, 평등 등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고 다른 가치를 아

래에 풍족시키면 극우가 되는 것이다”며 “보수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진보는 사회적인 평등을 우선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대학생들이 지나야 할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질문에 “우리 삶에서 내가 담고있는 지라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최고의 무엇인가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노력하는 것이 개혁의 실천이다”라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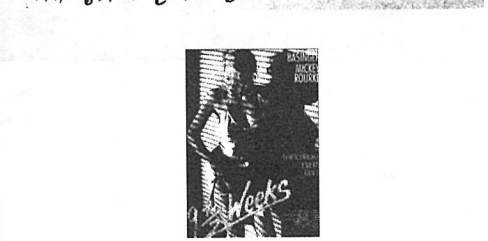
요즘 대학생들은 정치에 관심이 적는데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지 묻자, 그는 “관심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귀’ 있는 자들 들을여야 하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다. 좀 냉정한 말이지만 결국 자기가 살면서 정치의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할 수 없다”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정치와 연관관계가 있다고 먼저 느끼는 사람이 주변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무의미가 아닌 것은 교묘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실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계단’은 ‘이’의 의무이며 확산에 참 여조로 말했다.

“세네가 정치인 유시민 의원은 스스로 자신에게 ‘학역’이라는 역할을 부여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은 의석 150석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혁을 강행해도 지금 상황보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에게 ‘제 목 찾아주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한탄한 자기 목을 가져야 대한민국 국회의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누군가 해야 할 ‘학역’이 있는데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자에게 물읍시다.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가 무엇이고, 저는 정치개혁이라고 말합니다.”

한주연 기자
nack777@hanmail.net



세계 영화제 준비위원회 · 5월의 테마 : 예술은 국민의 표출이다



나인 하프 위크 nine1/2 weeks (1986, 미국)

감독: Adrian Lyne
출연: Mickey Rourke, Kim Basinger, Margaret Whitton, David Margulies, Christine Baranski

관객의 시선을 넘나드는 유쾌 탐나, 9주 반의 광적인 색스 게임은 시작됐다!!
젊고 낭만적인 이혼녀 엘리자베스는 우연히 매력적인 남자 존을 만나게 된다. 그에게서 먼저 마음을 건네오는 존. 그는 자연스럽게 엘리자베스를 사로잡기 시작한다. 그는 부유한 주식 중개인으로 화랑에서 근무하는 엘리자베스에게 저물적으로 접근해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둘은 엘리자베스의 아파트에서 격렬한 시간을 갖는다. 엘리자베스는 존의 매력에 마음을 빼앗긴다. 계속 만나고 있던 전 남편이 아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매: 5/28 (수) 늦은 5:30
곳: 6411 대학원 4층

▶ 다음주 상영작: 5월 ??